

2023년 'KTX 보성역' 생긴다

광주송정~보성~순천 잇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예타 통과 보성~서울 2시간 30분 주파...보성군 전국 만나질 생활권

2023년 보성에 'KTX 보성역'이 생긴다.

보성군은 광주송정-보성-순천을 잇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해 2023년 KTX 보성역이 개통된다고 밝혔다.

이번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는 1조7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목포-보성 간 남해안 고속철 사업 1조5000억 원까지 고려할 경우 경전선-남해안 고속철 사업에 2023년까지 3조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보성군은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고속철도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보성-서울이 2시간30분 만에 주파되고, 목포~보성간 남해안 고속철 사업으로 부산까지는 2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보성군의

전국 만나질 생활권이 완성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에서 전라남도를 대표해 사업 타당성 설명자로 나서 예타 통과에 기여했다.

김 군수는 "이번 예타 통과를 전남 인프라 발전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쏟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공이 가장 컸다"면서 함께 노력한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는 이어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더불어 해양레저관광(460억원)사업, 생활SOC 복합화 사업(700억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대한민국 해양관광거점으로 발돋움하며 보성형 블루이코노미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송정-보성-순천 구간은 경전선 중 일제 강점기에 건설되어 지금까지



지난 4월 김영록(왼쪽) 전남도지사와 김철우 보성군수가 '느림보 열차' 경전선에 탑승해 체험을 함께 했다. <보성군 제공>

남아있는 유일한 단선 비전철 구간이었으며 이번 사업으로 단선 전철을 고속화철도로 연장(122.2km)하고, 시속 250km

곡성군, 디톡스테라피 융복합사업 추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선정

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0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선정돼 본격적으로 디톡스(detox) 테라피 융복합사업을 추진한다.

곡성 디톡스 구축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을 육성하고, 디톡스 식품과 테라피 체험 행사를 개발해 주민 및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0~2023년 국비 49억원과 지방비 21억원 등 총 70억원을 투입해 곡성 디톡스 테라피 융복합산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활력플러스 아카데미를 운영해 생산자-액션 그룹-주인단 등을 네트워크화하고, 농촌체험활동가 등 청년사업가를 양성한다.

곡성군은 예산확보를 위해 올해 9월 민간 자생조직의 추진단과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공모에 대비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농촌의 지역 자산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보성 율포솔밭해수욕장 '불꽃축제' 31일 개막

보성군은 31일 율포솔밭해수욕장에서 한화그룹과 함께 불꽃 축제(포스터)를 연다고 밝혔다.

오후 7시부터 라디오 공개 방송과 '2020 보성 블루이코노미 선포 세리머니 불꽃쇼'에 이어 자정에 새해맞이 불꽃쇼가 펼쳐진다.

보성 불꽃축제는 음악과 군민들의 사연, 불꽃놀이 등이 결합한 축제로 진행된다.

불꽃축제에 이어 1월 1일 오전 7시에는 율포해변에서 해맞이 행사가 펼쳐진다.

경자년 신년 휘호 퍼포먼스와 새해 불



꽃쇼, 떡국 나눔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보성군은 원활한 행사를 위해 31일 오후부터 셔틀버스 10대를 운행한다.

셔틀버스는 보성다향체육관과 북재에서 탈 수 있다.

구례군, 서시천변 '생활환경숲' 조성 완료

15km구간 10억원 투입 이팝나무·야생화 등 심어

구례군은 서시천변 15km구간에 10억원을 들여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하천-제방부지나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보호와 유지 위해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주민에게 쾌적하고 힐링 할 수 있는 녹색휴식 공간을 마련코자 2019년 초부터 서시교에서 구만교에 이르는 서시천 제방을 따라 왕벚나무 등 2900여그루의 수목 정비와 고사-불량목 제거 등 보행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봄의 파티를 장식할 왕벚나무와 꽃복숭아의 꽃길 경관 연출을 고려해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수양버들, 메타세쿼이아, 이팝나무 등 교목 5종 526그루와 노랑원추리, 물억새 등 야생화 2종 21만본도 심었다.

아울러 30000㎡ 규모의 꽃단지 기반을 조성하고 야자매트 산책로와 목재 벤치 18개소, 구례 10경 안내판 등도 설치했다.

양보승 구례군 산림소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내년부터 '10만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는 등 생활권 내 도시숲 조성을 더욱 확대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생명의 도시 구례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고흥에서 '부분일식' 관측하세요

우주천문과학관, 26일 관측회 운영

고흥군은 특별한 천문현상인 부분일식이 진행되는 26일 고흥우주천문과학관에서 특별관측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분일식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위치해 달이 태양의 일부를 가리는 현상이다. 내년 6월에도 예정돼 있다.

이번 부분일식은 26일 오후 2시12분 시작돼 3시15분에 가장 많이 가려지면서 태양지름의 25%를 가리게 된다.

태양의 일부를 살짝 베어 문 모습이 연출되고, 이후 오후 4시11분에 부분일식 현상이 종료된다. 이 날 해는 오후 5시19분에 진다.

일식관측은 태양이 대상인 위험한 관측이지만 천문과학관 등 장비를 갖춘 곳을 방문하거나 개인의 경우 태양필터나 투영

판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관측할 수 있다.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은 우리나라 최대급의 800mm 반사 망원경과 돛대상관을 보유하고 있어 우주의 신비를 생생하게 관측하고 체험할 수 있다.

2층 전시실에는 양부일구 등 고전천문 기기와 태양계체중계 및 용오름현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돼 있으며, 1943년 고흥 두원에 낙하한 운석모형도 전시돼 있다.

핸드폰으로 천문과학관 앱을 다운받으면 증강현실(AR) 체험도 할 수 있다.

또 3층 전망대에서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조망이 가능해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고흥군, 중·고교생 11명 꿈나무 장학금 수여

고흥군은 지난 23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우수 중고교생 11명에게 50만원씩 장학금을 수여했다.<사진>

꿈나무장학금은 사회복지기금을 재원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각종 예체능 경진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 학생 등 지역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1998년부터 매년 지

급되고 있다.

이날 수여식에서 송기근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과 부모님께 축하를 드린다"며 "학생들의 성장은 곧 고흥 발전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이므로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구례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문열어

구례군은 군청 신청사 1층 민원실 옆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전남 지역 지자체 가운데 3번째로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구례군에 따르면 그동안 구례군민들은 세무서가 없어서 37km 떨어진 순천세무서까지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청 민원실 옆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했다.

이 곳에는 국세청 직원 1명과 구례군청 세무 직원 1명이 배치된 민원인들이 한 곳에서 국세와 지방세 민원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민원인들은 사업자 신청을 비롯해 등록 및 정정, 휴폐업 신고, 국세증명발급, 상가임대차확정일자 관련 민원 등 국세 민원과 지방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
---------------	---------------	---------------	----------------	---------------	---------------